



2면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정책화 논의

전주매일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음 5월 21일) 제281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시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산업지도 새로 그리는데 올인”

송하진 도지사, 민선 7기 3년 맞아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조성·산업 체질 개선 생태계 조성
독자권역 시대 실현·촉촉한 맞춤형 복지 등 7대 과제 제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9일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지속적인 산업의 체질 개선과 생태계 조성으로 전북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는데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년간 도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북의 미래 발전과 희망을 일구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정을 쏟아 왔다”면서 “지금의 그간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는 한편, 과거를 돌아보면서 전북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송 지사는 “민선 7기 4년차는 코로나 19 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에 집중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지도에 완성해 나가는 등 7대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날 7대 정책과제로 ▲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조성 ▲ 산업 체질개선과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산업지도 올인 ▲ SOC 구축과 광역화 모색으로 당당한 독자권역 시대 실현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균형발전 실현에 전심전력 ▲ 대선공약에 도민의 뜻을 반영해 전북 육 확보와 현안 해결 ▲ 도민의 자존의식 고취와 전북 몫 찾기 지속 추진 ▲ 촉촉한 맞춤형 복지로 따뜻한 전북 조성 등을 제시했다.

송 지사는 무엇보다,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신속한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빠른시간 내에 도민 70% 이상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 확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방역, 안전시설, 재해예방 등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송 지사는 “특히,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전북의 산업 체질개선과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 나가기 위해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체질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전북의 산업지도와 경제체질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화는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닌 생존의 필수조건으로, 전북도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도약의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산업체질의 전면적인 혁신을 역설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규모 있는 SOC를 구축하고, 전북도 광역화를 모색해 당당한 독자권역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 끝에 지난 2019년 1월 확장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개항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자매인까지 완료했다가 좌초됐던 김제공항의 쓰러진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공항 건립을 간절히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9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기다려 온 도민들의 염원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송하진 도지사는 “과거 전주완주 통합 무산으로 인해 광역시 하나 없는 도가 돼 균형발전의 꿈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전북도 광역화 방안을 마련해 규모 있는 SOC를 구축함으로써 낙후되고 도세가 약한 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균형발전 실현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재정분권 확보가 가장 중요해 단계 재정분권의 보완과 함께 재정분권의 추진을 강조하며, 공모 관행 및 예타제도 개선, 강소

사민 교통시설 지원을 위한 별도 특별법안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선공약에 도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전북 몫 찾기와 현안 해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자존의식 고취로 전북 발전의 힘을 우리 안에서부터 찾아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더욱 촉촉한 맞춤형 복지로 코로나19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각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아동학대 예방, 양육과 돌봄 공공성 강화, 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전북도 사회서비스 일’을 출범시켜 돌봄, 요양, 간병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도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더욱 따뜻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 지사는 “최근 고용률이 증가하고, 전북지역 소비지출지수도 상승하는 등 민생경제의 회복이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추경 편성을 통해 오는 7월 5일부터 지급하는 전도민 재난지원금이 소비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미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새로운 산업지도의 완성, 대선공약 발굴 등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 실행력을 확보할 것을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곳곳 매력만점
미이스 장소 많네?

전주 팔복예술공장
무주 태권도원 등
전북만의 특색있는
유니크베뉴 5곳 선정

전북도가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매력적인 미이스 행사 장소를 발굴하고, 미이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전북도 유니크베뉴 5개소(공공 4, 민간 1)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선정장소는 전주 팔복예술공장, 정읍 내장산생태탐방원, 무주 태권도원, 순창 실린드르건강장수연구소, 고창 상하농원이다.

그간 전북도는 시·군, 전북문화관광재단 등으로부터 유니크베뉴 후보지를 추천(3~4월)받아 서면검토 및 현지실사(5~6월), 선정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유니크베뉴에 전북 유니크베뉴 선정증서를 수여한다. 도는 국내 미이스 박람회 참가, 미이스 관계자 토크, 온라인 홍보 등을 지원하며, 2022년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하는 코리아 유니크베뉴에도 직접 추천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미이스행사 개최시 전북도 유니크베뉴를 활용하는 미이스 행사의 경우 인센티브 추가 지급(1인당 3,000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유니크베뉴 뿐만 아니라 전북도 예비 유니크베뉴도 5개소를 선정했으며, 도내 미이스 행사 유치 홍보시 예비 시설도 포함해 알리기로 했다.

예선장소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완주 오성현옥마을, 진안그린치유숲이다.

윤영일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채로운 미이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전북도만의 매력적인 유니크베뉴를 발굴해 선정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곳곳에서 활기찬 행사가 많이 열려 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 건의 2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전라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신규사업과 전주~김천 철도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에서 전북도에서 요구한 6개 사업 가운데 전라선 고속화철도 사업,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됐고,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 등은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앞서 4월 22일 공청회(안)에서 전라선 고속화 철도사업만 신규사업으로

전라선·광주~대구 달빛내륙 등 신규사업 반영
전주~김천 철도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반영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결과로, 다르게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가 추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다.

특히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제2~3차 국가철도망계획은

물론 2021년 4차 계획(안)에서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전주~김천 철도건설은 지속적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국가계획에 반영된 타 신규사업과 동등

한 사업효과를 가진다.

이에 전북도는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추진해 타당성 확보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논리개발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 순창, 장수를 거치는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반영으로 횡축 철도망을 확대함으로써 전북 동부권의 교통오지에 그린교통권이 확보되었다.

이외에도 현재 운행하는 전라선(익산~남원)구간의 고속화와 더불어 새만항 인입철도 연장선 반영으로 예타 추진중인 새만금선에 기대가 모아진다.

전북도는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강소 도시권 특별법 제정 및 예타제도 개선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이지만, 5년 단위로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 앞으로 5년 뒤인 2026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